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9월 4일
제1912호

주임 신부 :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 강세원 바오로

연령 회장 :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 703 968 3010

팩스 : 703 968 3013

주소 :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이메일 : sthasang@gmail.com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6-27)



〈십자가를 안고 가시는 예수님〉, 엘 그레코

연중 제23주일 (다해)

제 1 독서 지혜 9,13-18 |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화답송 시편 90(89) |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서 필레 9L-10.12-17 | 이제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으십시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빛나게 하시고 당신 법령을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복음 루카 14,25-33 |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때에 ²⁵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²⁶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⁷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²⁸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알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²⁹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³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³¹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알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³²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³³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순교자 성월

한국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 성월’로 지내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삶을 본받도록 이끌고 있다. ‘순교’란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바치는 행위이다.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하늘 나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지키고자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를 받아들였다. 9월 순교자 성월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 103위를 비롯하여 순교 복자 124위 등 수많은 순교자의 굳센 믿음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때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4년의 103위 시성에 맞추어 복자 성월을 ‘순교자 성월’로 바꾸고, 9월 20일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평소 하느님을 체험하며 살았기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 오늘날은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언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 내고자 노력함으로써 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복음 묵상

수난과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 당신을 뒤따르는 군중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자기 목숨마저 미워하고 모든 소유를 버린 채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족을 등지고 스스로를 괴롭히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장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머뭇거린 제자나(마태 8,21-22 참조)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여 떠나 버린 부자 청년처럼(마태 19,16-22 참조),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방해되는 무엇인가를 마음 한 켠에 쌓아둔 채 그것에 의지하며 위로를 찾는 이라면 그분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자기 소유”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온갖 집착, 아집과 교만, 이기심과 재물, 형식적인 신앙생활일 터입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전투에 나서는, 세속적인 일조차도 매우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진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이가 치열한 고뇌와 희생 없이 어찌 그것을 바라겠습니까? 타성에 젖어 허울뿐인 제자의 됴됨이 속에 거저 얻어지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이 든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옥바라지를 위하여 꼭 곁에 두고 싶어 하였던 오네시모스를 기꺼이 돌려보냈듯이(제2독서 참조), 우리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갇혀 살지 않도록 늘 경계하며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제1독서 참조).

주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용기 있게 버릴 때 찾아오는 ‘자유’에 맛 들어 갈 때, 비로소 제 십자가를 힘껏 끌어안고 참제자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고통으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루카 18,29-30).

(강수원 베드로 신부)



On the path to ordination

- 본당의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 포함한 6명의 신학생, 사제 후보자로 선정 -



Seminarians (from left) Donghan Lee, Eric McDade, Nicholas Young, Alexander Solsma, Sean Mazary and James Harbour stand during the Mass for Admission to Candidacy for Holy Orders at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in Lake Ridge Aug. 13.

지난 8월 13일(토) St. Elizabeth Ann Seton 성당에서 알링턴 교구 버릿지 주교님은 지난 2년간 철학 과정을 끝낸 6명의 신학생들을 정식으로 사제 후보자로서 받아들이는 예식(Mass for Admission to Candidacy for Holy Orders)을 진행했다. 이날 본당 출신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도 사제 후보자로 선정되었고 이태섭 사도 요한 보좌신부님과 본당 교우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며 기뻐했다.

앞으로 이동한 다니엘 신학생은 본격적으로 신학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3년 후에는 부제, 4년 후에는 사제로 서품을 받게 된다. 또 이효빈 바오로 신학생은 2023년에 정식 사제 후보자가 된다.



한국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기도

-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주소서.
-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역에게까지
널리 퍼시도록 빌어 주소서.
-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주소서.
-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어 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와 수도자를 많이 내게 하시고
-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냉담 교우들은 다시 열심해지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인류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 주시어
저희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 주소서.
-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피는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은총을 입어 선종하게 하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1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10일(토) 오후 7:30
- 한가위를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 부모, 친척, 친지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3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9월 4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4 단체부 회의

- 일시 : 9월 11일(일) 오전 11:30 (B-3,4)

5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1시 (B-3,4)

6 주일학교 개강미사

- 일시 : 9월 11일(일) 오후 2시

7 효도 한마당 잔치

- 일시 : 9월 18일(일) 오전 11:30(천교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어르신들(안나회, 하상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정성껏 효도 한마당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장기자랑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시니어 아파트로 가는 버스 시간은 오후 2:15분입니다.)

8 하상 성인학교 2022년 가을학기 안내

- 일정 : 9월 13일(화) - 12월 9일(금)
- 등록 : 9월 4일(일), 9월 11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천교실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안내서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습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명희 율리아나 교장 (703) 217-2775

9 가톨릭 성서모임 2022년 가을학기 그룹원 모집

- 가톨릭 성서 모임은 성서를 함께 읽고 묵상을 나누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생활화할 그룹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 청년 (19세 - 39세) / 어버이 (40세 이상)
 - 공부 기간 : 15주 (주 1회 2시간)
 - 신청 방법 : 청년 - bit.ly/spccbln2022f
어버이 - bit.ly/cblm2022f
 - 공부 과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 신청 마감 : 9월 4일까지 • 등록비 : \$30
 - 문의 : 청년 대표 - 강동철 로베르도 (571) 432-9950
어버이 대표 - 신상희 클라라 (703) 399-4768

10 하상 한국학교 교사 모집

-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 문의 : 김정선 교감 (571) 217-8941
hasangkoreanshcoolva@gmail.com

11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키워줄 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문의 : 윤정 보일 CCD 교감 (703) 371-3589
구아름 CYO 교감 (703) 599-8869

12 결혼 회년 미사 안내

- 결혼 25주년(1997년), 50주년(1972년)이신 분들을 위해 교구에서는 기념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 10월 16일(일) 오후 3시, 알링턴 주교좌성당 (주교님 집전)
 - 신청 :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3일(월)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세요.

13 중환자를 위한 피정(알링턴 교구 자선단체 주최)

- 일시 : 9월 30일(금) - 10월 2일(일)
- 장소 : San Damiano Spiritual Life Center (125 Old Kitchen Rd, White Post, VA 22663)
- 가톨릭 자선단체에서 중환자를 위한 피정을 합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부님들,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도 함께 합니다.
- 등록 및 문의 : Catholic Charities (703) 841-3830
E-mail : retreat@ccdo.net

14 성 정하상 바오로 성상 건립

- 본당 후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의 성상을 Fairfax Memorial Park에 세우고자 합니다. 성상 건립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 약정서 및 납입금은 사무실에 봉헌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성상 건립 납입 금액 : \$ 14,820

15 교무금 책정 및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유지비인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부모님들은 분가한 자녀들에게 교무금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책정 및 납부를 확인해 주세요. 아울러 교무금은 정성껏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해 주세요.

16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님 출국

- 본당에 오셔서 성경 특강과 레지오 훈화를 해주시며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정 신부님께서 9월 8일(목)에 로마로 출국하십니다. 정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신부님 환송 미사는 9월 7일(수) 11시에 있습니다.
- 정 신부님 성경 특강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17 본당 달력 제작 관련 사진 공모

- 2022년 본당 행사와 관련된 사진을 찾고 있습니다. 달력 제작에 참고할 사진이 있는 분은 사무실(sthasang@gmail.com)로 9월 10일(토)까지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8월 28일(연중 제22주일)

주일 헌금	\$ 6,755.00
교무금	\$ 7,115.00
교무금(신용카드)	\$ 700.00
감사 헌금	\$ 420.00
온라인 봉헌	\$ 1500.00
합계	\$ 16,4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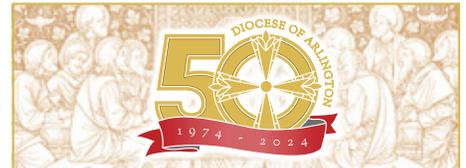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 9월 8일(목) 오후 5:00-6:00
- 9월 9일(금) 저녁 8:00-9:00
- 9월 11일(일) 오전 6:00-7:00

1. 주일 강론
2. 세계 성당을 가다 :
(4) 에콰도르 국민서원 대성당
3. 한국 교회사 : (2) 갈 사람이 없다면 내가 가겠소



DIOCESE OF ARLINGTON

1974-2024

알링턴 교구 설정 50주년

알링턴 교구는 2024년 교구 설정 50주년 회년을 준비하며 신앙의 기본 진리에 대한 영적, 지적 쇄신을 향하여 3년 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Year One (2021.11.21 시작) **"Remember"**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구의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https://www.arlingtondiocese.org/publieehome/>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